

# 보도자료

## (농림부)

○ 제공일 : 2006. 12. 19.  
○ 제공자 : 농림부 기반정비과  
○ 과 장 : 이 봉 훈  
○ 서기관 : 전 경 구  
○ 전 화 : 500-1982

이 자료는 2006년 12월 20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새만금 연안어민 근로지원대책 추진

연간 1,000여명 지원혜택, 2007년부터 본격 시행

- 농림부는 전북도 및 농촌공사 등과 협의, 새만금사업에 기여하면서 어민생계에도 도움이 되는 어민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.
- 어민근로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 - 공유수면감시원, 환경관리감시원, 방조제 유지관리원, 염생식물 파종 및 채종, 일부 폐사생물 처리, 유입쓰레기 처리, 환경조사, 농업시험포 운영 등 8개유형의 근로지원사업을 추진한다.
    - 이 중에서 공유수면감시원, 환경관리감시원, 방조제 유지관리원 등 3개유형의 사업에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  - 이와 같은 근로지원은 새만금 연안해역에서 맨손어업 등을 영위해온 어업인으로서, 생계가 어려운 가구 및 가구원중 근로를 희망하면서 실제 근로 가능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.
    - 공유수면감시원(74인), 환경관리감시원(37인), 방조제 유지관리원(40인) 등 3개유형의 사업에 151명에게, 나머지 5개유형의 사업을 포함하면 연간 1,000여명이 지원혜택을 받게되고, 이에 연간 33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.
- \* 공유수면 관리원(15인), 염생식물 파종 및 종자채취(560인) 등은 기시행

- 지원대상자(개인)는 마을별 어민협의체 또는 어촌계별 어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선정하게 되며, 관할 시장·군수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인 방법을 선택토록 하였다.
- 한편, 어민지원대책 수립과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국농촌공사의 전담팀(5인)을 지난 8월부터 새만금현장에 배치, 어업인 실태조사와 세부지원기준안 마련, 관련 지자체 및 어민등과의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.
- 어업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민설문 등을 통해 조사된 공식 통계자료인 통계청의 ‘2005년 어업총조사결과’를 토대로 분석했으며, 어업인수, 행정구역과 노출된 간석지 면적 등을 감안하여 시군별 사업량을 배분할 예정이다.
- \* 새만금 방조제 내측 연안에서 맨손어업자는 1,122가구 1,650명이며, 70%수준인 781가구 1,187인은 겸업(兼業)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앞으로, 금년내에 어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대상자 선정업무를 완료하고 2007년도부터 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어민근로 지원대책 이외에도 어업을 통한 사업소득 기회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.
- 방조제 안쪽에 노출된 간석지에 먼지발생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통통마디·칠면초·나문재 등 염생식물 채취를 허용할 예정이다. 다만, 경작권과 소유권 등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.

- 방조제 외측해역을 대상으로 공사추진 및 수질관리, 배수갑문 개폐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정어업을 허용하고 있으며,
  - 담수화 완료 시까지 수질오염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첩채취를 지역주민에 한하여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.
- 새만금사업은 지난 4월21일 방조제 최종연결공사를 완료하고, 2008년 방조제 완공을 목표로 흙쌓기·돌붙임 등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다.